

4) 우리집의 부처님



이 동화는요

어느 외진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깡'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도 부지런한 반면, 아들은 어머니와 달리 게을렀고 나쁜 일만 하며 매일 빈둥거리고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깡의 모습을 보며 속상했지만 “내가 아파서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깡은 어떻게 살까?” 라며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깡은 부지런히 일하는 '깨우'라는 친구 모습을 보면서 그저 형편이 무척 다르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깡은 깨우가 부처님에게 열심히 절하는 모습을 보고 불상에 절을 열심히 해서 깨우가 돈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얼른 절로 갔습니다. 깡은 스님에게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싶으니 불상을 하나 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스님은 “너의 집에는 이미 불상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스님의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들은 깡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비가 내리는 바람에 비를 많이 맞아 아프게 되었습니다. 깡은 높은 열에 헛소리까지 하며 끔찍 앓았는데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곁에서 깡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픈 중에 깡은 항상 어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고 지켜준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어머니를 괴롭히고 걱정만 끼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어머니께 절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깡의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적인 모습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태국의 불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태국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불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쨍은 평소 어떤 행동을 하는 아들이었나요?
- 쨍은 깨우가 돈과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 쨍이 스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스님이 쨍에게 말씀하신 “너의 집에는 이미 불상이 있단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알아봅시다.

- 태국의 기후(날씨)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태국은 열대 몬순 지대에 속해요. 일년 내내 더운 날씨를 유지하지만 5월부터 10월까지의 비가 오는 우기, 11월부터 4월까지의 건조한 건기예요. 태국의 우기에는 주로 하루 한두 번 쯤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가 금방 그쳐요.

- 태국의 불교에 대해 알아보시다.

Tip!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자 사원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태국 사람들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고 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불교 사원들이 가득해요. 사원은 학교이자 병원, 고아원, 집회소 등의 역할을 하며 태국인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통과례가 불교 의식TM Tip! 유산들도 불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불교는 태국인들의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나 태국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태국 헌법에서 태국의 국왕은 불교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험해봅시다.

- 불교와 관련된 태국의 문화 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넷이나 책, 백과사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
- '깡'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깡'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는 '깡'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나요?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어머니는 왜 깡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내거나 꾸중을 하지 않았을까요?
- '깡'에게 '불상'은 어머니였습니다. 과연 나에게 '불상'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봅시다.



참고자료

- 태국의 불교 문화유산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유타야 에 대한 여행 소개
<http://blog.naver.com/586hot/70146678230>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다큐멘터리
MBC 휴먼다큐 '사랑' : 2008 '엄마의 약속', 2009 '풀빵엄마'